

65년 전쟁 끝내고 한반도 평화·공동 번영의 길로

‘판문점 선언’ 내용과 의미

비핵화 명문화... 북미회담 디딤돌

내달부터 확성기·전단살포 금지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만나 도출해낸 공동선언문 즉 ‘판문점 선언’에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는 물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담겨졌다.

또 두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곧바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고 밝힌 대로 ‘안전한’이란 표현을 넣음으로써 애초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언제든 회담장을 떠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우선 두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명명된 회담 합의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을 그대로 관철한 것이다. 또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해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하고 교류·왕래의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합의사항이 나온 부분은 ‘남북관계 진전’이다. 두 정상은 우선 개선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6·15를 비롯해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은 물론 국회·정당·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해 다양한 형태의 남북 공동행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해 스포츠 교류는 물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숙원을 풀기 위해 당장 오는 8월15일에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나아가 경제교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등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구체적 합의의 실천은 물론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논의하기 위해 양 정상 간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해 1년 내

에 두 번 이상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같은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안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원칙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박지경기자

판문점 공동선언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